



##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 교육요구 및 개입실태\*

오 원 옥<sup>1)</sup>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Abstract =

### School Nurses' Knowledge, Educational Needs and Providing Education about Internet Addiction\*

Oh, Won Oak<sup>1)</sup>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to identify school nurses' knowledge, educational needs and providing education about Internet addiction. **Method:** A total of 198 school nurses working in schools located in Gyunggi Province and the cities of Ulsan, Daegu, and Pohang participated in the study. A self-report scale was used to collect data. It included 53 items measuring school nurses' knowledge, their educational needs and performing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Results:** The mean score for knowledge of Internet addiction was 13.12 (SD=3.13), indicating a moderate level of knowledge. The highest frequency, 24.7% of the school nurses agreed that the computer teacher is the appropriate person to do educate on Internet addiction, followed by the school nurse with another teacher (24.2%). Only 40.4% of the nurses had any experience in providing students with education about Internet addiction. The main reason for not providing education about Internet addiction was that there was no time (57.6%). Education was reported most frequently as being provided by the class teacher (36.3%), followed by school nurse (31.3%).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role of school nurses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Internet addiction and to develop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further develop their abilities in teaching and counseling.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chool nurse, Knowledge, Involvement, Health education

주요어 : 인터넷 중독, 보건교사, 지식, 개입실태, 건강교육

\* 이 논문은 2005년 동국대학교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 오원옥(E-mail: ohwo@dongguk.ac.kr)

투고일: 2005년 7월 1일 심사완료일: 2005년 8월 2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Won-Oak(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707, Sukjang-dong, Gyeongju City, Gyeongbuk 780-714, Korea

Tel: +82-54-770-2619 Fax: +82-54-770-2616 E-mail: ohwo@dongguk.ac.kr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사회”라는 거창한 말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 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보편화된 강력한 생활도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초고속 인터넷보급 1위의 자리를 2001년부터 4년 연속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평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0.2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당연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보통신부 뉴스, 2005).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인터넷 이용율은 71.9%로 이용자수도 3,257만 명에 이르러 이는 그동안 정보사회 초기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인터넷 이용 기반 확충과 활성화 노력에 대한 가시적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정보통신부 뉴스, 2005). 특히 6~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은 97.3%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이 당연 가장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인터넷 이용의 주 목적은 학습이나 정보탐색이라기 보다는 주로 게임과 오락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인터넷이 아동과 청소년의 주요 놀이 활동 수단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한 인터넷 이용과 확충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 되는 동안 인터넷이 주는 다양한 역기능에 아동과 청소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성장 발달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미숙한 시기이므로 그 어느 연령층 보다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Brenner, 1997; Oh, 2003).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서 아동으로 저연령화 되고 있고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등의 사례가 초등학교 아동에게서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어(이경님, 2004),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심각한 사회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인터넷 중독 관련 요인의 탐색에 관한 연구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2003년도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한국형 인터넷 중독 척도(K-척도) 개발을 필두로 청소년과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인터넷 중독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을 시도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외부 강사인 전문

상담자의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의 교육이 많고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회성의 교육 및 프로그램 적용을 지양하고 연계성 있는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전문적인 교육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 중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건강까지 총체적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학교에서 보건이라는 중심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증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김영임 등, 2004). 따라서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건강관련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적용 역시 학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른 보건교사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오원옥, 2004; Oh, 2003). 최근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는 보건교사의 상담 전문성 제고 및 활용 방안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홍현숙, 2004),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적 활동에 대한 보건교사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제 까지 수행된 인터넷 중독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넷 중독 관련 실태 또는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실태 또는 교육적 요구의 조사를 시도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연계성 있는 인터넷 중독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어떤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개입의 실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의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지식 정도는 어떠한지, 현재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는 어떠한지 그리고 보건교사가 어느 정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에 개입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추후 보건교사 연수와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지식, 교육 요구 및 개입실태를 조사하여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기반 인터넷 중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지식 정도를 규명한다.
-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를 파악한다.
-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개입 실태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과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교육 요구 및 개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대구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5개 도시의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이다. 이들 보건교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허락한 보건교사 198명을 임의 표집하여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연구도구

#### • 인터넷 중독 지식 측정 도구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지식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문헌고찰과 양미경(2004)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터넷 게임 중독 지식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예비문항 35문항을 인터넷 중독 상담자 2인, 간호학 교수 2인 그리고 보건교사 2인등의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후 결정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각 문항에 대해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을 주어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 조사 질문지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 수혜경험 및 요구,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 및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총 23문항을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 • 인터넷 중독 개입 실태 조사 질문지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개입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학생의 발견 경험, 인터넷 중독 교육 운영실태 및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자료 구비현황 등에 대한 총 21문항을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근거로 개

발하여 이용하였다.

###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연구의 동의를 구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보건교사를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조사로 활용 할 것이며 익명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총 300부를 발송하여 213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71%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신뢰성이 떨어지며 자료분석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198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8.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지식 정도의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보건교사의 학교에서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와 개입실태 분석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보건교사 총 198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보건교사의 현재 근무 학교급은 전체 대상자 중 초등학교급이 39.4%(7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급이 34.8%(69명), 고등학교급이 25.8%(51명)였다. 연령은 평균 39세(SD=6.90)였고, 학교근무경력은 평균 12년(SD=7.38)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5.9%(170명)로 가장 많았고, 자녀는 있는 경우가 82.3%(163명)로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62.6%(124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이 23.2%(46명)였다. 학교소재지는 광역시가 54.5%(10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도단위가 37.4%로 많았다.

###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지식 정도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정도는 0~20점 만점에 평균 13.12(SD=3.13)점이었으며 최저점수는 5점, 최고점수는 20점으로 중정도의 지식수준을 나타냈다<표 2>.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수준의 정답율을 항목별로 분석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8)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근무 학교급	초등학교	78 (39.4)	
	중학교	69 (34.8)	
	고등학교	51 (25.8)	
연령(세)	20 - 30	15 ( 7.6)	39.40(6.90)
	31 - 40	119 (60.1)	
	41 - 50	56 (28.3)	
	51 ≤	8 ( 4.0)	
	≥ 5	7 ( 3.5)	
학교 근무경력 (년)	6 - 10	79 (39.9)	12.54(7.38)
	11- 20	98 (49.5)	
	21 ≤	14 ( 7.1)	
	미혼	27 (13.6)	
결혼상태	기혼	170 (85.9)	
	있다	163 (82.3)	
자녀여부	없다	35 (17.7)	
	전문대학	28 (14.1)	
학력	대학	124 (62.6)	
	대학원	46 (23.2)	
	광역시	108 (54.5)	
근무학교 소재지	도단위	74 (37.4)	
	읍/면 단위	16 ( 8.1)	

<표 2>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관련 지식 정도 (N=198)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범위
13.12	3.13	5	20	15

결과 '컴퓨터를 거실과 같은 공동 장소에 두는 것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의 항목이 정답률 9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알콜이나 약물 중독과 달리 인터넷의 경우 중독이 되었다 해도 전문의료기관 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다'의 항목이 94.9%,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의 항목이 85.9%, '인터넷에 중독되면 VDT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와 '인터넷에 중독되면 가상세계와 현실간의 구분 능력이 떨어진다'의 항목이 84.3%의 순으로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다.

반면, 정답률이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컴퓨터를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의 항목이 정답률 24.2%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절만 지키면 인터넷 상의 관계를 현실세계로 연결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37.9%, '온라인이 제공하는 자기통제성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된다'가 39.4%,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터넷 중독 양상은 차이가 없다'가 41.1%, '인터넷 중독은 높은 스트레스와도 관련된다'의 항목이 46.5%의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표 3>.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 요구를 학생교육과

<표 3>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지식 정답률

문 항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정답율
	실수(%)	실수(%)	실수(%)	(%)
남자와 여자의 중독양상은 차이가 없다 .	84(42.4)	8.2(41.4)	32(16.2)	8.2(41.4)
인터넷 중독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인터넷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62(81.8)	29(14.6)	7( 3.5)	162(81.8)
인터넷 중독은 높은 스트레스와 관련된다.	92(46.5)	70(35.4)	36(18.2)	92(46.5)
예절만 지키면 온라인(인터넷)상의 관계를 오프라인(현실세계)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95(48.0)	75(37.9)	28(14.1)	75(37.9)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알콜, 약물)과 달리 금단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8( 4.0)	164(82.8)	26(13.1)	164(82.8)
인터넷에 중독되면 VDT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167(84.3)	6( 3.0)	25(12.6)	167(84.3)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익명성이다.	120(60.6)	52(26.3)	26(13.1)	120(60.6)
인터넷에 중독되면 지능이 떨어진다.	41(20.7)	106(53.5)	51(25.8)	106(53.5)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알콜, 약물)과 달리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0(15.2)	127(64.1)	41(20.7)	127(64.1)
인터넷에 중독되면 가상세계와 현실간의 구분능력이 떨어진다.	167(84.3)	14( 7.1)	17( 8.6)	167(84.3)
성격과 인터넷 중독은 큰 관련성은 없다.	24(12.1)	154(77.8)	20(10.1)	154(77.8)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매일 하는 것보다 주말 또는 주중에 날을 정해 놓고 몰아서 하는 것이 좋다.	53(26.8)	115(58.1)	30(15.2)	115(58.1)
평소 우울한 사람이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149(75.3)	21(10.6)	28(14.1)	149(75.3)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컴퓨터를 치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137(69.2)	48(24.2)	13( 6.6)	48(24.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08(54.5)	42(21.2)	48(24.2)	108(54.5)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170(85.9)	8( 4.0)	20(10.1)	170(85.9)
인터넷에 중독되면 뇌기능의 변화까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133(67.2)	14( 7.1)	51(25.8)	133(67.2)
온라인이 제공하는 자기 통제성은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78(39.4)	35(17.7)	85(42.9)	78(39.4)
컴퓨터를 거실과 같은 공동 장소에 두는 것은 인터넷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	193(97.5)	4( 2.0)	1( 0.5)	193(97.5)
알콜이나 약물 중독과 달리 인터넷의 경우는 중독되었다 해도 전문 의료기관까지 방문할 필요는 없다.	4( 2.0)	188(94.9)	6( 3.0)	188(94.9)

관련된 교육 요구와 교사 자신과 관련된 교육요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우선, 보건교사의 학생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 관련 교

육요구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62.6%)'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겠다(35.9%)'로 대부분의 보건교사는 학교

<표 4>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 요구 (N=198)

영역	변수	구분	실수	(%)
학생 교육 관련 요구	인터넷 중독 교육의 필요성 인식	꼭 필요함	124	(62.6)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음.	71	(35.9)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음.	3	( 1.5)
		필요하지 않음	0	( 0 )
	인터넷 중독 교육 의사	있다	144	(72.7)
		없다	29	(14.6)
		모르겠다	25	(12.6)
	인터넷 중독 교육이 필요한 이유	아동 또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17	( 8.6)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160	(80.8)
		건강한 인터넷 사용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21	(10.6)
인터넷 중독 교육 시작 적정시기	유치원	80	(40.4)	
	초등학교 저학년	92	(46.5)	
	초등학교 고학년	26	(13.1)	
공시적 인터넷 중독 교육시간의 필요성	그렇다	138	(69.7)	
	아니다.	24	(12.1)	
	모르겠다.	36	(18.2)	
선호교육 교육형태	학기당 1회	65	(32.8)	
	정례적 교육 프로그램	78	(39.4)	
	전체학생 대상 특강	14	( 7.1)	
	소그룹 집단 상담	37	(18.7)	
	기타	4	( 2.0)	
선호교육차시 (차시)	1	67	(33.8)	
	2-3	112	(56.6)	
	4-5	15	( 7.6)	
	6 이상	4	( 2.0)	
인터넷 중독 교육 적임자	보건교사	41	(20.7)	
	담임교사	20	(10.1)	
	상담교사	13	( 6.6)	
	컴퓨터교육 담당 교사	49	(24.7)	
	외부전문강사	27	(13.6)	
	보건교사를 포함한 협동교육	48	(24.2)	
인터넷 중독 교육을 위한 개선점	인터넷 중독 교육의 필요성 인식	120	(60.6)	
	인터넷 중독에 관한 홍보	26	(13.1)	
	인터넷 중독 관련 교사 연수과정의 개설	17	( 8.6)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 자료 준비	20	(10.1)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위한 공식 시간 배정	15	( 7.6)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수혜경험	있음	43	(21.7)	
	없음	155	(78.3)	
보건교사 교육 참여의 제한점	인터넷 중독에 관한 지식과 연수가 부족해서	112	(56.6)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자료나 교재가 부족해서	35	(17.7)	
	교육 시간의 미배정	40	(20.2)	
	필요성 인식 부족	7	( 3.5)	
	기타	4	( 2.0)	
향후 관련 교육 참여의사	있다	130	(65.7)	
	없다	33	(16.7)	
	모르겠다	35	(17.7)	
선호교육경로	보건교사 연수	125	(63.1)	
	교육용 책자	2	( 1.0)	
	교육용 영상매체	16	( 8.1)	
	전문가 방문 교육	55	(27.8)	

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건교사 자신이 교육 또는 연수 후 자신의 재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가 72.7%(1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 정신적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가 8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건전한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10.6%(21명)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시작의 적정 시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46.5%(92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치원급이 40.4%(80명), 초등학교 고학년이 13.1%(2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69.7%(138명)로 가장 높았다. 바람직한 교육의 형태로는 '정례적 교육 프로그램'이 39.4%(78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 학기에 학급별로 1회'가 32.8%(65명)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교육 차시에 대해서는 2-3차시의 교육이 56.6%(112명)으로 가장 높았고, 1차시가 33.8%(67명)로 나타났다. 적절한 교육담당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컴퓨터 담당교사'가 24.7%(49명), '보건교사와 타교사의 협동'이 24.2% (48명), '보건교사'가 20.7%(41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담임교사, 외부전문강사, 상담교사의 순으로 각각 13.6%, 10.1%, 5.6%의 빈도를 나타냈다. 현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독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60.6%(120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에 관한 홍보'가 13.1%(26명), '관련 교육 자료 구비'가 10.1%(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자신에 대한 인터넷 중독 관련교육 요구를 분석한 결과, 보건교사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 수혜경험 여부는 '없다'가 전체의 78.3%(155명)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행 상의 제한점으로는 교사 자신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지식과 연수의 부족'이 56.6%(11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할당된 교육 시간의 부족'이 20.2%(40명)로 나타났다. 향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 이수 의사는 '있다'가 65.7%(130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모르겠다'가 17.7%(35명), '없다'가 16.7%(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원하는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보건교사 연수를 통해서'가 63.1%(125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기관 방문 교육'이 27.8%(55명)로 나타났다.

###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개입 실태

보건교사의 학교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실태를 인

터넷 중독 학생의 발견 경험 및 대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운영 실태 및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자료 구비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학생 확인 경험 유무에 대해서 전체 대상자의 42.2%(84명)가 중독 학생 발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발견 건수는 대체로 1-5건 이하가 전체의 77.4%(6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10건 이하가 16.7%(15명)였다. 발견한 인터넷 중독의 유형 모두에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사이버 게임 중독이 전체의 98.8%(83명)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게임 중독 학생의 발견 경험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이버 채팅중독이 31.0%(29명), 사이버 섹스(음란물) 중독이 13.1%(11명), 정보검색 중독이 2.4%(2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거래 중독 학생의 발견 경험은 없었다. 위의 발견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사의 주요 대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상 학생과 직접적인 상담을 수행한 경우가 전체의 53.6%(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연락하고 상의한 경우가 26.2%(22명), 다른 교사에게 의뢰한 경우가 16.7%(14명),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3.6%(3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생을 인터넷 중독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59.6%(118명)로 실시하는 학교보다 더 많았다.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 시간 미확보가 57.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18.6%),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와 교육에 자신이 없어서가 각각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주 교육 담당자는 담임교사가 36.2%(2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교사가 31.3%(25명), 컴퓨터 담당교사가 22.2%(18명)였고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주로 활용하는 교육 시간은 조회 또는 종례 시간이 55%(44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 교과목과 같은 관련 교과목에서의 교육이 18.8%(15명)로 그 다음의 순위였다. 한 학기 교육 횟수에 대해서는 1회가 65%(5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자료 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55.1%(109명)가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42.9%(85명)가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비 교육 자료'에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홍보물(50.5%), 교사참고용 도서(30.3%), 관련도서(23.7%), 시청각매체(19.7%)의 순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들은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자료가 부족한 주요 이유에 대해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부족한 것(56.6%)과 인터넷 중독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의 부족(17.7%)

<표 5>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개입실태

변수	구분	실수	백분율(%) <sup>1)</sup> 양성률(%) <sup>2)</sup>
인터넷 중독 발견경험 <sup>1)</sup> (N=198)	있다	84	42.4
	없다	114	57.6
인터넷 중독 발견 건수(건) <sup>2)</sup> (N=84)	1-5	65	77.4
	6-10	14	16.7
	11≤	5	5.9
발견한 인터넷 중독 유형*	사이버 게임중독	83	98.5
	사이버 섹스(음란물) 중독	11	13.1
	사이버 채팅 중독	26	31.0
	사이버 거래 중독	0	0
	정보검색 중독	2	2.4
인터넷 중독 발견 후 대처방법 <sup>2)</sup> (N=84)	학생(아동)과 상담을 수행했다	45	53.6
	부모와 연락하고 상의했다	22	26.2
	다른 교사에게 의뢰했다	14	16.7
	전문기관 상담을 알선했다	0	0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	3.6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실시 여부 <sup>1)</sup> (N=198)	예	80	40.4
	아니요	118	59.6
교육 미실시 이유 <sup>2)</sup> (N=118)	필요성 인식 부족	14	11.8
	교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	14	11.8
	급한 교육이 아니라서	22	18.6
	교육시간 미확보	68	57.6
추후교육 실시계획 <sup>2)</sup> (N=118)	있다	39	34.7
	없다	22	18.6
	모르겠다.	57	46.6
주 교육 담당자 <sup>2)</sup> (N=80)	담임교사	29	36.2
	보건교사	25	31.3
	상담교사	3	3.8
	컴퓨터 담당 교사	18	22.2
	외부 전문강사	0	0
주 교육 활용시간 <sup>2)</sup> (N=80)	기타	5	6.3
	조회 또는 종례 시간	44	55.0
	계획된 프로그램 시간	14	17.4
	특별활동시간	7	8.8
학기별 교육 횟수 <sup>2)</sup> (N=80)	관련교과목 시간	15	18.8
	1회	52	65
	2회	20	25
	3회 이상	8	10
구비 교육 자료 <sup>1)</sup> (N=198)	매우 부족한 편이다.	109	55.1
	부족한 편이다.	85	42.9
	충분한 편이다.	4	2.0
	매우 충분하다.	0	0
구비 교육자료 형태*	관련도서	47	23.7
	교사 참고용 도서	60	30.3
	영상자료	39	19.7
	홍보물	100	50.5
	기타	10	5.1
교육자료 부족 이유 <sup>1)</sup> (N=198)	필요성 인식부족	112	56.6
	교육자료에 대한 정보 부족	35	17.7
	출판된 적절한 자료 부족	18	8.1
	학교의 예산 부족	10	5.1
	기타	23	11.6

\* : 복수응답

을 주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정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 및 학교 현장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교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논의하고자 한다.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 요구는 평균 13.12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한 경우 65.5점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이는 양미경(2004)이 초등학교 2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약 60점의 평균을 보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건강관련 교육 즉, 흡연이나 성교육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지식수준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의 저하와 실제 교육 수행이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를 위한 연수 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본적 개념부터 인터넷 중독 전반에 대한 결친 교육의 수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항목별 정답율을 분석한 결과 보건교사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도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중독의 발생이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 즉 중독의 정도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김미경, 2002; 김형란, 2003; 정승수, 2002; 조운섭, 2002; Oh, 2003) 많은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는 이에 대한 정답율이 4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컴퓨터를 치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은 정답율이 가장 낮은 24.2%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의 무조건적인 제거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이나 인터넷에 대한 면역능력과 절제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선이고(김성천, 2002),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을 유도하고 스스로 자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오원옥, 2004)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시 무조건적으로 컴퓨터를 제거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처능력의 강조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생 교육과 관련된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98%가 학생을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건교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일회성의 교육보다는 정례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행되는 강의식 교육보다는 해당 학교에서 전문 교육 담당자가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 담당자의 적임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자신보다는 컴퓨터 담당 교사가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는 자신이 교육 이수 후 교육을 수행하고 싶다는 경우가 전체의 72.7%로 높게 나타난 점을 보아 교육 참여 의사는 있으나 아직 보건교사 자신이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또는 연수 경험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현재 인터넷 중독 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이 “인터넷 중독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라고 응답한 점 그리고 실제 교육 수행의 어려움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과 연수의 부족”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와 관련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인터넷 중독 개입을 유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본 연구에서 선호 교육 경로로 가장 높게 나타난 보건교사 연수(63.1%) 등을 통한 인터넷 중독관련 교육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보건교사 연수의 교육 내용 요구 조사를 한 김영숙(2003)의 연구에서도 보건교사는 연수 시 담당교과와 관련된 전문지식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전체의 65.8%를 보여 연수를 통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건강교육의 대부분은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또는 구강교육에 편중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김경렬, 주현옥 및 김영혜, 2005)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인식 증가와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적정 교육 방법 및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정례적 교육(39.4%)과 2-3차시의 교육 구성(56.6%)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오원옥(2004)의 중학생 대상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 조사에서 학생들이 정례적 교육 요구가 46.2%로 가장 높았고 희망 교육 차시는 한 학기에 3-5차시가 52.7%로 높게 나타난 점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은 장례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건교사의 개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 학생을 발견한 사례가 전체의 42.2%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건교사의 개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교사들이 발견한 인터넷 중독 유형의 98%가 게임중



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 중 일차적으로 게임 중독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인기로 갈수록 많이 접하게 되는 쇼핑 또는 중독과 같은 하위 유형의 인터넷 중독 등을 언급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 학생의 발견 후 대처 시 직접적인 상담을 수행한 경우는 전체의 53.6%로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기관까지 의뢰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보건교사는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를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시 인터넷 중독의 교육 필요성 인식과 함께 인터넷 중독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해 전체의 약 60%가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보건교사의 개입은 전체의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인터넷 중독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은 학교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주요 건강교육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수행하지 못한 주요 장애 요인으로 보건교사에게 할당된 교육 시간의 부재가 전체의 약 58%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독립된 보건 교과목의 부재를 언급한 점(김경렬 등, 2005; 김보은, 1999; 김영임, 이연경, 1994; 오윤신, 2001; 윤동엽, 2001)과 같은 맥락으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역시 보건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한 시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교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그나마 실시되는 경우도 조회 또는 종례 시간을 이용한 교육 실시가 전체의 5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이러한 접근은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학교보건교육을 정규 교과목화하면서 인터넷 중독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선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개설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수행에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자료 구비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98%가 '매우 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의 부재를 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동시에 자료의 출처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대부분은 학교라는 현장에 있으며,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기관으로 보건교육의 효과가 지역사회로 파급되는 효과가 큰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위한 적합한 기관이다(김영임 등, 2004). 따라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역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해 연계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치료적 활동보다는 예방적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의미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 관련 지식, 교육 요구 및 개입실태를 조사하여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기반 인터넷 중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5개 도시의 초, 중, 고등학교 보건교사 198명이며, 우편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건교사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지식정도는 0-20점 만점에 평균 13.12(SD=3.13)점이었으며 최저점수는 5점, 최고점수는 20점으로 중정도의 지식수준을 나타냈다.
- 보건교사의 학생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를 분석한 결과 학생을 위해 인터넷 중독 교육은 학생의 신체 정신적 건강 피해를 위해(80.8%) 꼭 필요하며(62.6%),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46.5%), 학교에서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은 정례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39.4%)는 응답이 높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 중독 교육의 필요성 인식(60.6%)임이 확인되었다.
- 보건교사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요구를 분석한 결과 많은 보건교사가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수행 받은 적이 없었고(78.3%), 교육 수행의 장애 요인은 자신의 지식과 연수의 부족(56.6%), 할당된 보건 교육 시간의 미확보(20.2%)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보건교사들은 교육 참여 후 학교에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을 수행할 의사가 높았으며(65.7%), 보건교사 연수(63.1%)를 통해 교육을 받고 싶어 했다.
- 학교에서 인터넷 중독 학생과 교육 수행에 대한 보건교사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대한 주요 장애점은 환경적으로는 보건교육 시간의 확보 부족(57.6%)이며 보건교사 개인적으로는 필요성 인식의 부재(56.6%),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의 부재(17.7%)가 확

인되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인터넷 중독 개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연수 등을 통한 필요성 인식, 관련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을 제안한다.

- 보건교사를 위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 학교 현장에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수행과 관련된 보건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심층적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경렬, 주현옥, 김영혜 (2005). 7차 교육과정 시행 후 초등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실태.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2(1), 41-54.
- 김미경 (2002).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 충동성, 대인불안과 컴퓨터 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은 (1999). 전남지역 양호교사의 보건교육 실태와 개선인식.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천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후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2003). 보건교사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인식 및 요구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임, 이연경 (1994). 서울시 일부 초등학교 보건교육 양상 및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7(1), 29-36.
- 김영임, 박영임, 오미성, 박정희, 김차영, 길미경 (2004). *보건교과교육론*, 서울: 현문사.
- 김형란 (2003). 초등학교 학생의 게임중독이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미경 (2004).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원옥 (2004).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교육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0(1), 48-58.
- 오윤신 (2001). 초등학교 양호교사의 보건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동엽 (2001). 서울시 초등학교 보건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4).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99-118.
- 정보통신부 뉴스 (2005). 정보통신부 뉴스. 한국, 초고속인터넷 보급 OECD 국 중 1위. *정보통신부뉴스 2005년 5월 29일자*.
- 정승수 (2002). 컴퓨터게임 중독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지각 차이 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섭 (2002). 컴퓨터 게임 중독이 초등학생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2004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검사(K-척도)와 예방교육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센터.
- 홍현숙 (2004). 학교폭력에 대한 보건교사의 지식, 태도 및 개입실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 Reports*, 80, 879-882.
- Oh, W. O. (2003).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buk area.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8), 1135-1144.